

12/21(화) 에스라 묵상 1

에스라 1: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스 7:5,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이자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였습니다(스 7:11, “여호와와 그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서는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1차 포로 귀환 이후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1-6장), 영적으로 타락한 공동체의 율법을 재건하는 사건(7-10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포로귀환은 성전 재건을 위해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귀환은 율법의 재건을 위해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귀환은 성벽 재건을 위해 B.C.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포로 귀환

하나님께서서는 1절 말씀대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이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응답하셨습니다(렘 29:14,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기 이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같은 예언을 했습니다(사 44: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약속대로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한절씩이라도 암송하는 것도 매우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고레스

바사의 왕 고레스는 당시 메대와 미디어, 바벨론을 정복하여 페르시아 대제국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통치 기간 동안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펴면서 각각의 종교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으로 영토를 확장하다가 바사 지역 동편의 유목민들의 소규모 반란을 진압하다가 끝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스 1: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합니다(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2절 말씀에 따르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사명도 주셨

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대로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4절,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자유롭게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이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라고까지 명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작은 액수부터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계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한다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마음을 다하고 힘쓰면 그 사역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부요함에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하이티를 위한 기도:** 지난 10월에 인질로 잡혔던 미국, 캐나다의 선교사들과 아이들이 어제 모두 석방되어서 무사히 본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이티 땅이 올해 지진과 대통령 암살 이후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정치적인 질서와 기강이 다시 회복되고 국가가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